

새만금 사업을 소재로 한 소설의 갈등 양상 연구

— 조헌용의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김은혜(전북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
3. 생태주의적 대안 모색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 일컬어지는 새만금 사업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개발이나 환경이냐'라는 가치관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낸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지역은 개발 공간의 방대함, 소요 기간 장기화, 사업 비용의 막대함 등으로 정부와 환경단체 간, 지역 주민들 간, 자치단체 간 갈등 사안이 끊임 없이 생성되고 있는 담론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담론은 경제학적, 환경학적, 공학적, 인류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에서 그중에서도 소설이라는 '이야기'장르에서는 새만금 사업¹⁾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특히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구체화

와 대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처음, 중간, 끝의 완결성을 가진 소설은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면서 당대의 메시지를 응축한다. 비유와 은유, 이미지를 통한 말하기는 그 어떤 직접진술이나 선전구호, 슬로건과는 다른 효과를 준다. 특히 생태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녹색문학, 생태문학, 환경문학²⁾의 경우 그 예술성만 확보한다면 다른 담론에 비해 그 호소력이 훨씬 크다³⁾.

조헌용의 연작소설집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는 ‘개발이나 환경이냐’라는 거대 담론을 가로지르면서 새만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려낸다. 총 8편의 중·단편⁴⁾이 실려 있다. 서사는 바다에서 육지로 변해가는 ‘과정 중’의 새만금 일대를 포착한다.

이 작품에 대해 류보선은 ‘새로운 하위주체의 발견’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조헌용의 작품들이 “주변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존재들을 사유의 중심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수많은 하위주체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기존의 보편성을 해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⁵⁾ 평론가 오창은은 이 소설이

- 1) 새만금 사업은 87년 12월 10일 당시 대선을 앞둔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세목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년 뒤 91년 11월 28일 간척공사 기공식과 동시에 사업의 첫 삽이 떴었다. 그러나 당초 2천 4년 사업완료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개발이나 환경이냐’라는 사회적 논쟁의 틈바구니와 법정 다툼 속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2천 7년 4월, 겨우 물막이 방조제 공사가 끝났다. 2010년 현재까지도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 행정구역, 수질보전대책 등을 두고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새만금 지역은 반세기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사람들이 바다를 떼운 땅을 밟고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2) ‘환경문학’은 환경과이나 자연훼손의 실상을 고발하는 문학을 가리킨다. ‘생태문학’은 자연과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하기보다는 환경위기나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으로 파지는 문학을 말한다. ‘녹색문학’이란 환경문학과 생태문학을 함께 아우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다. 환경위기나 생태계 위기와 관련한 스펙트럼 전체를 포함하는 문학이 바로 녹색문학이다.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4, 37-39면.
- 3) 김옥동은 생태주의를 다룬 시적 담론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환경 담론 가운데에서도 굳이 그 효과를 따진다면 시적 담론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문학적 담론 또는 예술적 담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시적 담론은 미지근한 에토스나 차가운 로고스가 아니라 뜨거운 파토스에 기대기 때문에 다른 담론과 비교해 볼 때 그 호소력이 훨씬 크다. (...) 실제로 짧은 시 한 편이나 소설 한 편 또는 수필 한 편이 정부기관이나 환경단체가 내놓은 환경보고서나 과학자들의 연구논문이나 저서보다도 생태의식을 일깨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수 있다.”-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4, 20면.
- 4) 여기에 실린 8편의 중단편의 순서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어느 강을 흐르고 있을 까」, 「바다에 길을 묻다」, 「호랑이 시집가는 날」, 「뿌리없는 나무」, 「고래가 올 때」, 「전국노래자랑」, 「무화과가 있는 풍경」, 「오늘의 날씨」.

“교감의 언어(방언)와 연작소설 형식을 활용해, 민중주의와 생태주의의 결합을 시도했다”며 ‘사실주의적 생태문학’의 입구에 도달한 작품으로 가치매김했다⁶⁾. 한편으로 임영천은 “거대한 산업자본과 정부 권력의 연합에 의해 이른바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한 평화스럽던 마을과 그곳의 주민들이 점차로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소멸의 미학적 관점에서 그려나간, 이 시대의 특징적인 생태소설”이라고 평가했다. 또 리얼리즘의 소설과는 달리 삶의 현장성을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작품으로서 예술적 승화의 정도와 호소력 면에서도 비례적으로 강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조현용의 중편 「과도는 잠들지 않는다」가 바로 그러하다고⁷⁾ 했다. 본 연구자는 앞서의 평가들과 시각을 같이하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각종 치열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본 소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소설에서 구체화하고 상징화 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무엇인지, 그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밝혀보자 한다.

2.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

2.1. 보상금을 둘러싼 각축전

조현용의 연작소설집에서는 무엇보다 정부 보상금으로 인한 마을 사람과 가족 내 갈등이 반복해서 묘사된다. 특히 중편 「바다에 길을 묻다」⁸⁾에서는 정부 보상금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심리가 잘 그려져 있다. 보상금의 직접 대상물인 ‘배’의 가치, 지급 기한의 문제, 보상금 지급 이후 가족 간의 다툼, 보상 기준의 비합리적인 설정으로 인한 마을 집단 간 갈등 등 세밀하게 다룬다.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을 위해 삶과 노동의 현장이었던 갯벌과 바다 그리고 마을의 곳곳을 공사판으로 내줘야했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마

5) 류보선, 「탈마법화된 바다, 혹은 바다의 재탄생」, 『과도는 잠들지 않는다』, 창비, 2003, 285면.

6) 오창은, 「『졸(卒)의 언어로 풀어낸 새만금 갯벌 이야기』, 『비평의 모험』, 실천문화사, 2005, 111~131면.

7) 임영천, 「한국의 생태소설 연구-조현용의 한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1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6.

8) 중편 「바다에 길을 묻다」는 1998년 동아일보 중편 당선작이다. 발표 당시 원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소고」였다.

을 어민들에게 ‘선보상·후공사’라는 원칙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는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지 두 해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뤄졌고 실제 보상은 그 이후에나 지급됐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보상은 정말 곳감처럼 나왔다. 간척사업이 시작되고 두 해가 지나면서 보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부터 보상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지만 한 달, 두 달 미적거리며 늦어지지만 했다. (...) 문제는 보상이 나오면서 한결 심해진 어업규제였다. 보상은 십퍼센트쯤이나 이십퍼센트쯤 조금씩 나오면서도, 새로운 면허 발급과 기존 면허 연장을 증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저곳을 어업통제지역으로 묶었다. (「바다에 길을 묻다」, 39면)

정부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바다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민들은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뱃일을 위태위태하게 이어간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바다와 배를 바라보는 정부와 어민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⁹⁾. 정부 입장에서 바다는 매립을 위해 구획되고 통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 합의는 곧 바다에 대한 어민들의 통제권을 정당하게 획득했음을 뜻한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을 선언함과 동시에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배는 그 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과 맞교환하는 하나의 물품이다.

그러나 어민들의 입장에서 멀쩡한 배를 폐기하는 것, 아직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것 등 정부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진다. 주민들에게 새만금 사업과 보상금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타율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비록 보상금과 맞교환 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민들의 인식은 배의 이름을 통해 상징화 되고 있다. 예컨대 장씨의 배 이름 ‘해화호’는 막내아이의 태몽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9) 본 소설 분석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어민들의 삶을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연구한 함한희의 논문을 다수 참고했다. 새만금 지역 어민들에 대해 연구 조사한 함한희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간척사업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환경과 생명』, 2001, 여름호. ②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새만금지역의 경우」, 『ECO』 2호, 한국환경학회, 2002, 5. ③ 「새만금 간척개발사업과 어민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7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51-182면.

그리고 배에 붙여진 해화라는 이름은 장씨의 막내아들에게도 부여된다. 즉 장씨에게 해화호는 자식인 해화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사람과 배의 존재가치가 동일한 궤를 이루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은 배들은 이 섬에 들어와 소각되거나 그 중에 상태가 좋은 것들은 경매를 해서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배, 아버지의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각이 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거나 무슨 상관이나고…… 그래요. 무슨 상관이나고 말을 하겠지…… 우리 배의 이름은 해화호입니다. 해화호, 장해화, 해화호, 장해화 그래요. 해화호는 제 이름에서 딴 이름입니다. 아니 제 이름이 해화호에서 딴 것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바다에 길을 묻다」, 64면)

위 인용문은 장씨의 막내아들인 해화의 독백이다. 정부는 신시도를 폐선들의 소각장으로 지정했다. 「바다에 길을 묻다」는 <배무덤>, <신시도>, <까침바우> 각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시도>에서는 고향으로 내려온 사진작가 장씨의 막내아들 해화의 독백이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시도는 배의 무덤이자 실연당한 해화의 내면 공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배와 해화가 동일한 층위를 이루는 수평적 공간이기도 하다.

서사에는 무엇보다 지역 어민들이 생각하는 ‘배’의 가치와 운명에 천착한다. 앞서 제 1부 겪인 <배무덤>에서는 장씨가 멀쩡한 ‘해화호’를 폐선처리 하러 가다가 겪는 심리적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 ‘해화호’의 선장 장씨는 어린 나이에 시골이 싫어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젊었을 적 지역 곳곳을 전전하다가 노름빛에 쫓겨 군산 해안가 까침바우에 들어와 어부로 재인생을 산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새만금 사업으로 뱃일을 못하게 되었고 반편생을 함께한 ‘해화호’를 폐기처분하러 ‘신시도’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가는 도중, 장씨는 차마 배를 폐기하지 못하고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다시 낚시질을 하게 된다. 낚시질을 하면서 바다가 막히기 전까지 만이라도 고기잡이를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비록 오랜만에 걸려들었던 덩치 큰 삼치를 놓치고 말지만 말이다.

높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바다가 그들 눈에서 물으로 바뀌는 날까지

그들은 바다를 버리지 않을 터였다. 아직 바다 밑에는 노랑조개, 피조개, 생합, 소라, 골뱅이, 꼬막이 그들의 믿음처럼 자라고 있었다. (「바다에 길을 묻다」, 55면)

배와 바다에 대한 가치의 인식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어민들 간의 고단한 갈등을 예고한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바다의 생태계 파괴는 어민개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전이된다.

한편으로 보상금을 둘러싼 자본 갈등은 인간 사회의 최소 공동체인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배’의 노동은 온 가족이 함께 해 온 생계활동이었다. 즉, 배를 운전하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고, 낚은 고기를 고르고 손질하는 일련의 노동행위는 아버지 1인이 아닌 어머니와 아들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해야 할 공동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혹은 맨손어업일지라도 가족구성원 중 어느 한 대표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문화인류학자인 함한희는 새만금 보상과정에 대한 국가의 가족주의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고찰한 바 있다.

새만금사업의 보상과정에서도 한국의 가족주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어민가족을 다루는 문제나 각 개별가족 안에서 보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러하다. 국가에서 어민들에게 맨손어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때, 국가는 어민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민가족에 대한 생활보상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인식하고 그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 국가는 한 가족 안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한 사람, 즉 부양자가 있고, 나머지 가족원은 모두 피부양자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어민가족에 대해서 보상금 지불을 결정할 때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을 주 대상으로 정하였다. 나머지 가족원에 대한 보상은 자연스럽게 소홀히 인식되었다.¹⁰⁾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국가의 가부장적 시각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간의

10) 함한희,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새만금 지역의 경우」, 『ECO』 2호, 2002, 274면.

갈등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담론화 되지 않았던 측면이기도 하다. 작가는 보상금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을 여러 번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한다.

장씨의 큰아들 혜성은 아버지에게 ‘보상받은 돈 가운데 자신이 일한 만큼만 내어놓으라’고 요구한다. 혜성은 보상금으로 도심에서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장씨는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혜성에게 선뜻 돈을 내어주지 못한다. 혜성은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그는 새만금 사업 전 뱃일을 할 때만해도 성실한 일꾼이었다.

그런가하면 맨 마지막에 수록된 「오늘의 날씨」에서는 장씨와 장씨의 아내 서울댁의 갈등이 그려져 있다. 장씨 내외는 ‘함께 배에 올라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다. 바닷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포장마차를 세워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데 장씨는 보상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뒀다. 적금 통장에 묶여있는 보상금으로 땅을 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해약해 죽은 박상길(섭에 투자를 했다가 망해 자살을 했다)에게 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장씨는 ‘바다를 내어주고 얻은 또다른 삶’의 터전인 포장마차에서 아내와 피튀기는 싸움을 벌이게 된다. ‘쌍년, 씨발년’이라는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아내에게 “내 돈 어떡할 거”냐고 주먹질을 한다. 아내 또한 이에 질세라 “나는 이제껏 공으로 살았간디 자기 돈이야. 내 돈이야, 내 돈. 당신 배 탈 때 나도 배 탔고 당신 죽을 고비 넘길 때 나도 넘겼어”라며 남편에게 ‘지랄’한다고 악다구니를 늘어놓는다. 보상금 관리 책임을 둘러싼 내외 간의 싸움으로 생계공간인 포장마차 안은 이수리장이 된다. 가족 개개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새만금 보상금은 평화로웠던 가족구성원을 분열의 길로 안내하고 삶의 고통을 주는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불충분한 보상금액, 여러 번 나눠 지급되는 시기의 문제, 허술한 실태조사 등 절차에 대한 불만은 어민가족 뿐만 아니라 마을 내 집단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한 부분은 소설집 여러 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묘사된다.

어른들이 싸우기 시작한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고 보상이 나오면서 부터다. (...중략...)

그러니까 보상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아웅다웅 싸움을 시작한 거다. 저 집은 얼마를 받는데 우리는 왜 얼마냐? 저 집은 이사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보상을 주느냐? 뭐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엔 김 양식하는 사람들과 조개를 잡는 어촌계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

(「바다에 길을 묻다」, 82면.)

배 보상이 끝나고 간접보상이 나오면서 버림치로 놔둔 기름통을 내어놓고 기름장사를 한다며 제법 솔찮은 간접보상을 받았던 터였다. 문제가 된 것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가짜 보상 건이 있다며 투고를 했고, 대대적인 조사가 나온다고 했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을 어찌지 못했다. 집에 있던 기름통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시내 고물상에서 현 기름통을 더 사다놓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쉬 달래지지 않았다. (「호랑이 시집가는 날」, 104-105면)

간척사업이 시작되고 어느 때부터 조개가 줄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가구를 사용하고, 또 그렇게 자리다툼이 시작되었다.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좀더 많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차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았다. (「뿌리 없는 나무」, 138면)

‘어류보다 패류’가 주된 수입원인 까치마우는 인심이 좋았던 ‘오붓한 마을’이었다. ‘험한 뱃길’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간의 공동체 의식은 도시민들보다 또 어떤 농촌 마을보다도 단단했다. 어촌 공간의 공동체 의식은 바다와 갯벌에 대한 공동 소유, 자연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공동 의례 행사라는 어촌 특유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공동의 노동 공간인 바다와 갯벌이 새만금 사업에 의해 파괴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으면서 마을 주민 간, 집단 간 분열이 일어난다. 정부의 보상금액은 그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가구에도 보상금이 지원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바다에 길을 묻다」의 3부 격인 <까침바우>편에는 ‘양식장’과 ‘뱃일’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과 차이로 인한 집단 갈등이 그려져 있다. 내용은 이런 것이다. ‘김 양식장 앞으로 나오는 보상이 조개를 잡는 배 한 척 앞으로 나오는 보상의 열 배’가 넘었다. 김 양식장을 하는 가구는 소수였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촌계 사람들은 다수였다. 그리고 마을에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궈왔던 쪽은 김 양식업을 하는 가구가 아니라 조개를 잡는 어촌계 사람들이었다. 김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십여 년 전에 들어왔다. 그나마 어촌계 사람들의 이해와 양해 아래 김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에서 이러한 마을의 연유와 역사는 고려되지 않았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어촌계 사람들은 소수의 김 양식장 집에 지급될 보상금 중 절반을 어촌계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 양식장을 하는 사람은 어촌계 사람들을 법원에 고소했고 어촌계도 이에 맞고소로 대응한 상태다. 이들의 법정다툼은 ‘결국 양쪽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어촌계 사람들은 법정 다툼 이전에 배를 처분하고 받은 보상금이 있다. 그러나 김 양식업자는 법정 다툼으로 아예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업을 하는 가구 입장에서 이미 보상을 받고도 몰래 뱃일을 하고 있는 어촌계 사람들이 고을 리가 없다. 이들은 어촌계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정부 당국에 고발하고 만다.

「바다에 길을 묻다」에서 까침바우 어촌계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피해보상의 실상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마을입구인 오작교에 불을 지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이런 집단행동은 ‘높은 곳에서 서류만 보고 일하는 그 속도 모르고 일하는 놈’ 즉, 탁상행정으로 새만금 사업을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절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외침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으로 대처할 뿐이다. 언론 또한 현상만을 보도할 뿐, 어떤 대안도 조정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이 부분을 서사화 하면서 사회적으로 야기된 고통이 개인적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을 꼬집는다.

2.2. 노동 환경의 변화와 생존 투쟁

마을 주민에게 새만금 사업은 급격히 일어난 재앙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때때로 새만금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삶 가운데 만난 바다의 폭풍우나 거센 파도와 견주어 비유되곤 한다. 자신의 젊음을 바다에 던졌던 광팔이영감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는 태풍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사변통에도 내어놓지 않았던 배를 새만금에 내어주었다’, ‘마을이 생기고 햇빛로 늙어오는 동안 어떤 태풍도 이렇게 모질고 거칠지는 않았다’고 고백한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은 노동환경의 전환을 폭력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단지 보상금 지급 하나로 이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버렸고, 생계 수단을 앗아갔다. 사업의 시행 주체인 정부는 현지 어민들에게 삶의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집단 이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인근 도시에 집을 사는 데 쓰여지곤 했다.

그리고 보상금은 쉽게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 갔다. 평범하고 소심한 노인네인 광팔이영감도 투전판에 끼어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을에 형성됐다. 마을 주민 몇몇과 함께 장씨의 장남 혜성도 노름에 미쳐갔다. 이들은 목돈으로 들어오는 보상금을 금세 노름빚으로 없애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노름빚에 쫓겨 육지의 끝마을인 까침바우에서 밤뚫짐을 싸고 도망나간 가족이 심심찮게 늘어갔다.

이런 현상은 바다와 육지에서의 자본 형성에 대한 인식차이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촌 마을에서 돈이란, ‘혼전만전 써도 다음날 배질 한번이면 다시 만질 수 있는’ 자본이었다. 그러나 육지 노동으로 인한 돈은 그렇게 단번에 즉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종자돈 혹은 땅이 없으면 모으기 쉽지 않다. 한 번의 험한 바다 노동에 돈과의 교환가치가 있는 어류와 패류를 획득할 수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한 번의 노름판으로 거대 자본을 뉘아 올릴 수 있는 노름에 쉽게 이끌리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기만 하다.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노동 공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관과 경제관의 대전환이 필수였다. 그러나 노동 공간의 전면 전환을 제공한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비전과 교육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역량에 따라 각자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불법 공간으로 변화된 바다에 나가 예전에 하던 대로 어업활동을 지속하거나, 심리적 공황상태(노름)에 빠지거나, 허가되지 않은 땅에서 포장마차를 세워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말이다.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활동 수단으로 포장마차가 등장한다. 포장마차는 ‘땅’이 없는 현지 주민들이 방파제 위에 스스로 마련한 유일한

생계 공간이다. 장씨의 포장마차가 위치한 ‘끝집’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데, 육지의 끝 혹은 방파제의 끝이라는 지리적 공간과 한편으로는 생계수단에 대한 마지막 대응 공간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매립지과 방파제는 정부 소유로서 끊임없이 단속의 공간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저 땅이 본래 누구 땅이었는데’라며 전근대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어민들에게 바다는 ‘누구에게나 일한 만큼은 갖게 해’주는 공평한 노동 공간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물이 나오는 화수분이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인간과 인간, 인간과 바다가 평등한 공생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바다가 어민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만 하는 유토피아는 결코 아니다. 어민들에게 바다는 ‘삶의 젖줄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인 이중적 존재이다. 「호랑이 시집가는 날」의 주인공 성수는 바다에서 함께 나간 아내를 잃었고, 「뿌리없는 나무」에서 청주댁은 남편 석구를 잃었다. 「바다에 길을 묻다」에서 등장한 신시도 할머니는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바다에서 잃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촌을 떠나지 못하고 맴돈다. 아내를 바다에서 잃은 뒤 생선은 입에도 안 되던 성수는 복순을 만나 다시 뱃일을 시작한다. 바다를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는 신시도의 할머니는 보상으로 군산에 집도 마련했지만, 막상 떠나지 못하고 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들에게 바다는 비록 힘들고 고달픈 시련을 준 존재이지만, 자신들의 운명 그 자체로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바다만한 별이가, 특히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넉넉한 바다보다 더한 별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여의도의 백사십배 가량의 땅이 생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만큼의 바다를 잃는다는 것은 알지 못할까? 땅이야 주인이 있다지만 바다는 그렇지도 않았다. 그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어처구니없이 성난 파도에 맞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자연의 순리대로만 살아간다면 바다는 모자람이 없이 누구에게나 일한 만큼은 갖게 해준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바다에 길을 묻다」, 54~55면)

어민들에게 공평하고 넉넉한 바다와 달리 육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계활동은 매우 고단한 것이 된다. 험한 뱃일을 함께 해 온 노동의 동지는 이제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혹은 조개부릴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관계가 된다.

예전에 까침바우는 도시로부터 도태되거나 혹은 육지 끝 해안가로 숨어들어 온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공간이 돼 주었다. 장씨도 서울에서 노름빚에 쫓겨 이곳 까침바우에 숨어들어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전력이다. 까침바우는 오갈 데 없고 상처받은 외지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을이었다. 이러한 인심의 바탕에는 ‘바다’라는 노동 공간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된 환경이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주어졌고 ‘일한 만큼’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이다. 그러나 ‘땅’은 독점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마을 주민들의 개방적 태도는 새만금 사업으로 바닷물이 막히게 되고 주 생업의 공간이 ‘땅’으로 변하면서 폐쇄적 태도로 돌변하게 된다. 더구나 이들이 기대고 있는 방과제란 정부 소유로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다. 철거와 존립 사이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불법’ 포장마차 주민들에게 생계활동은 그야말로 생존권을 쥔 전쟁이 된다.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삶의 터전을 ‘땅’으로 옮겨온 마을 주민들의 폐쇄성이 잘 그려져 있다. 외지인이 자신들의 포장마차 사이에서 터전을 잡으려 하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마저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신고를 해버린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존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육지에서의 삶이란 결코 외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닌 삭막하기만 한 장소가 된다.

한편 경제 활동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충돌 역시 바다와 육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¹¹⁾ 어민들에게 바다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한 공존과 평등의 노동 공간이자 삶의 역사가 배어있는 문화이다. 반면, ‘땅’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론자들에게 바다는 ‘땅’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떨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땅으로 전환해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시대이다. 정부는 육지 개발론자의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

11) 새만금 사업에서 충돌하고 있는 바다와 땅에 대한 어민과 정부의 인식차이는 함한희와 강경표에 의해 면밀히 고찰된 바 있다. 이들은 「어민, 환경운동가, 그리고 정부의 바다인식-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2007)라는 논문에서 새만금 바다가 어민들에게는 ‘생업의 공간과 정체성의 구성요소’이고, 환경운동가에게는 보존해야 할 자연생태계로 성역화된 영역으로, 개발론자와 정부에게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힌다.

금 바다는 낙후된 전라북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땅’이 돼야 할 공간이자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식량문제를 대비해야 할 공간이다. 바다를 메꿔 다져진 땅은 농지로 이용되거나 복합 산업단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발 청사진이 일용 노동자 철수(「고래가 올때」)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언론이나 대정부 토론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곤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바다와 갯벌은 확보하고 구획되어야 할 식민지이다. 따라서 어민의 경제활동과 이에 대한 가치는 은폐되어야 할 ‘타자’가 된다.

새만금 사업으로 자신들의 과거사를 안고 있는 바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된다. 그러나 어민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비극으로 남겨진다.¹²⁾ 지역 주민들은 바다를 내어준 보상을 집값에, 노름에, 빚 갚는 데 쓰는 등 쉽게 소진해 버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탈바꿈한 간척지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다.

2.3. 생존권과 가치관의 불일치

「고래가 올 때」는 우리 사회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과 개발 논쟁을 돌아본다. ‘환경이나 개발이냐’라는 극단을 달리는 논쟁은 초등학교 딸아이의 교육현장에서도 다뤄질 만큼 우리 사회 공론화된 쟁점 사안이다. 가정에서조차 아빠(철수)와 딸아이는 각각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시각에서 서로를 설득하려 한다. 아빠는 개발론자의 입장에 선다.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으로 ‘막연하게 들은’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식량 확보 등을 거론한다. 반면 딸아

12) 2천 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안 방폐장과 새만금 간척사업 전후의 주민생활의 변화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겪은 상처와 후유증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단 이들 간의 상담조사와 설문 조사를 통해, 물막이 공사가 끝난 방조제 안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오던 계화도 주민들의 다수가 갯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트라우마’ 즉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파악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에서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겪은 상처와 후유증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탐색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부가 국책 사업 실시 전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치유책 마련과 함께 예방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갈등연구소, 「부안사태 4년, 국책 사업 갈등이 남긴 상처,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www.socon.or.kr, 2007,7.

이는 환경론자의 시각에 선다. 아름다운 지구를 미래의 주인인 어린 자신들과의 허락도 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막연한 주장을 펼치던 아빠는 어찌면 딸아이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돼 새만금 공사장 일터를 전전하는 철수에게 개발론이든 환경론이든 이러한 거대 담론은 중요하지 않다. 철수에게는 ‘새만금 공사가 먼 미래가 아닌 당장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가 개발론자의 편에 선 것은 단지 일자리 확보 때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딸아이는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른다. 그런데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는 덤프 트럭으로 노동을 하고 일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일거리는 새만금 공사가 중단된 뒤로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힘이 들었고 어찌다가 겨우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며칠이면 끝나고 마는 단발성 일일 뿐이었다’. 덤프 트럭의 할부금과 생계비, 아이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철수는 새만금 공사가 재개되기만을 확고고대하는 것이다. 철수에게 새만금 공사는 ‘밥줄’이고 ‘생명’이다. ‘새만금을 믿고 차를 샀고 새만금 공사를 믿고 꿈을 꾸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철수는 유년시절 물 맑은 마을 앞바다에서 만난 고래를 기억한다. 공사판 현장을 누비면서도 ‘조금은 거칠한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묘한 부드러움’을 가져다준 고래의 촉감을 추억한다. 환경론자나 개발론자 그리고 함께 담론을 펼치는 딸아이도 경험하지 못한 새만금 바다의 추억을 말이다. 철수와 새만금 바다는 환경론자나 개발론자보다 더 가까운 존재인 것이다.

새만금은 개발론자에게 경제 활성화와 미래식량의 기지이다. 환경론자에게는 미래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반면, 철수에게 새만금 앞바다는 자라온 유년시절의 토대지만, 당장의 생존의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달려야 하는 오늘의 공사현장이다. 따라서 철수와 환경론자의 연대와 공조는 요원하기만 하다.

한편으로 바다를 잃고 자본주의 사회로 재편입 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이제까지 지켜온 생태적 규범, 도덕적 규범 그리고 작업 윤리도 버리고 오로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만을 연출한다.

광팔이영감(「뿌리 없는 나무」)은 조개를 부릴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리 도둑질’을 하곤 한다. 어민들은 혼탁해진 바닷물 속에서 예전에는 잡지

않았던 고기씨알이나 잡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다. 철수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횃수를 조작해 일당을 부풀려 받는가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매립용 흙을 빼돌리는 일에 가담하기도 한다. 모의한 일을 동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호등을 무시하면서까지 더 빨리 달리기, 모의한 일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경적을 울려 모두를 발각되는 위협에 몰아넣기 등 일당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다. 「전국노래자랑」에서는 ‘불법’ 포장마차를 꾸린 마을 주민들과 철거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온 시청 직원 간의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 포장마차 사람들은 거대 권력에 맞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물질인 ‘똥물’을 퍼붓는다. 그리고 크레인과 굴삭기에 자신들의 몸뚱아리를 던져 철거를 막는다. 똥물, 몸뚱아리, 갓은 욕설과 폭력, 악다구니는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의 마지막 저항수단이 된다.

사회적 규범의 눈으로 볼 때 철수나 광팔이영감, 불법 어선, 불법 포장마차 주민들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일 뿐이다. 도덕과 부도덕,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 담론은 생존권 앞에서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2.4. 공간 파괴에 따른 문화 붕괴

까침바우에는 최치원의 전설이, 신시도에는 박산(博山)의 전설이 내려온다. 신라 말기 최고학자인 최치원의 전설이나 신시도의 박산에 얽힌 전설은 마을의 형성 과정과 지명의 유래를 가늠하게 해준다. 또 마을의 유구한 역사 현장은 마을 주민들의 과거사가 흐르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마을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이어 나간다. 마을의 구성물 이를테면 나무, 바위, 다리, 땅 등에 얽힌 전설과 역사는 마을의 풍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까지 구성하는 것들이다. 어촌 마을 사람들은 이름보다는 칠성호 선주, 영남호 뱃동사, 길용호 아줌, 해화호 손주 등 배이름으로 호명되어 왔다. 바다를 향해 용신굿을 치르고 까침바우에서 굿을 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들은 전설과 신앙을 타고 ‘까침바우 사람들’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배경으로 하나로 묶여왔다.

「뿌리 없는 나무」는 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까침바위에 새겨진 주민

들의 과거사를 추적한다. 청주댁과 청주댁의 남편 석구는 마을의 전통 의례에 따르지 않았었다. 이들이 이사온 지 서너 해가 지나고 새 배를 장만했지만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치르는 ‘용왕님께 작은 치성’ 하나 들이지 않았다. 얼마 후 거센 태풍이 몰아닥쳤다. 방파제가 무너지고 서너 척의 배가 태풍에 휩쓸렸다. 거센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 ‘용왕님을 부르는 비손’을 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석구는 어떤 의례 행위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석구가 타고 나간 청진호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청주댁은 기독교인이었다. 석구와 마찬가지로 마을 전통의 무속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바닷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던 그녀는 결국 성경책을 버리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낯걸이굿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어딴는가? 보이지가 않는구만……

해성호 아줌이 봐주고 있을 거구만유. 걱정 마세유. 아이들은 잘 있은께유. 나가 잘 키울 것구만유. 당신 없이도 나가 잘 키울 거구만유. 틀림없구만유. 약속할 거구만유.

청주댁의 얼굴에 맑은 눈물 몇 방울이 불을 타고 흘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앉아 오랫동안 울고 웃으며 소곤거렸다.

인자 가야겠네. 나 땀시 자네가 고생이 많구면. 인자 날랑은 잇고 새 사람 만나서 잘 사소. 나도 인자 가면 새 신부 만날라네.

큰무당이 눈을 돌려 마을사람들을 그윽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우리 이 사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글면 안녕히들 계시고요.

말을 마친 큰무당이 마을사람들을 향해 큰절을 꾸벅 올리고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다. (「뿌리없는 나무」, 155면)

위 인용문은 청주댁이 낯걸이굿에 합일돼 죽은 석구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런데, 청주댁의 낯걸이굿은 개인 행사가 아니다. 풍악을 울리고 길을 놓고, 금줄을 만들고 비손을 하는 등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례가 된다. 굿판이 벌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너나없이 죽은 이의 명복과 마을의 안녕을 빈다. 이러한 제의행위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은 ‘카니발적 유대감을 경험하며,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한다’¹³⁾. 이를테면 마을 굿은 개인적 위기를 공동의 정성과 공동의 체험으로 풀어내려는 문화적 대응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고유의 역사, 문화, 전설은 새만금 사업과 함께 파괴되고 없어져버릴 위기에 처한다. 현지 주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은 바다의 죽음과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일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토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마저 바꿔놓았던 것이다. 경제적 고통에 이어 개인의 과거사가 기록된 마을의 역사물과 전설의 붕괴를 목도해야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섬도, 아직 싱싱하고 깨끗한 물고기가 올라오는 이곳도 얼마 안 있어 등 굽은 물고기가 낚시대에 올라오겠지요. 그때쯤이면 김형도 수범이도 낚시하는 법도 잊어버리겠지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박산이었던 이 마을 전설도 사라지겠지요. (「바다에 길을 묻다」, 71면)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다를 메운다고 까치바위는 조각조각 부서져서 바다에 실려 나갔다. 삼촌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을이 자랑스러웠지만 바위가 부서지는 걸 보고는 어쩌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른들은 마을 이름이기도 한 까치바위를 없애고 쓰레기장을 만들었을까? (위의 책, 80면)

마을은 바다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바다의 죽음은 곧 마을의 죽음이고, 마을의 죽음은 전설의 소멸로 이어진다. 첫 번째 인용문인 장씨의 막내아들 해화의 독백은 이러한 풍경을 쓸쓸히 고백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초등학교 장한빈의 눈에 비친 문화유산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이다. 아이의 눈에서 볼 때 ‘까치바위’의 파괴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삼촌으로부터 마을 전설을 듣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지켜야 할 전통 문화유산인 까치바위가 단지 바다를 메우기 위해 무가치하고 무성적인 돌덩이로 치부되는 것에 강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마을의 전통문화를 무시한 정부를 향해 있으면서 동시에 붕괴되는 고유의 문화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마을 어른들에게로 향해 있다.

13) 류보선, 「탈마법화된 바다, 혹은 바다의 재탄생」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창비, 2003, 10, 285면.

한편으로 「오늘의 날씨」에서는 장씨의 흉내뿐인 고사가 묘사된다. 막혀 가는 바다 위에서도 어업을 포기하지 못한 장씨는 ‘시커멓게 죽어가는 바다에도 아직 용왕님이 살고 있을는지, 몇 해나 더 용왕님의 은공을 받을 수 있을는지’ 걱정하면서 배위에 오른다. 그러나 육지로 변해가는 바다에서 어렵사리 건져 올려진 것은 속이 텅 빈 조개껍데기와 돌맹이 뿐이었다. 장씨의 몸은 더 이상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됐고 이후로 다시는 뱃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오염된 바다와 장씨의 고장 난 신체, 그리고 파괴되는 마을의 전설과 문화는 운명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3. 생태주의적 대안찾기

3.1. 꿈 공간의 이동, 하늘과 땅

‘생태계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투쟁이 아니라 협력이요 갈등이 아니라 상호의존이다’¹⁴⁾. 8편의 중단편으로 이어지는 연작들은 갈등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서사의 마무리나 마지막 편에 이르러 꿈꾸기와 연대와 사랑의 희망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파괴된 마을현장에서 ‘소원을 빌고, 꿈꾸기’의 매개물은 하늘의 ‘별’로 이동한다. 어린 아이 한빈이는 이제 까침바위가 아닌 동산에 올라 ‘싸움도 없고 서로 미워하는 일도 없는 별’ 자미성을 찾아보거나, ‘내 별’을 꿈 꾀다¹⁵⁾. 또 뱃일을 접고 포장마차를 꾸린 장씨는 보상금을 날린 아내와 피튀기는 싸움을 한 후 별뿔별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막막히 오줌을 누는 장씨의 눈에 별들이 박혀 있는 검은 하늘이 달려들었다. 하늘 밑으로 갯벌이, 먼 곳으로 밀려나간 바다가 담겨들었다. 부르르, 몸을 터는 장씨의 눈 속으로 별뿔별 하나가 떨어졌다. 별뿔별이 떨어진 바다에서 장씨의 작은 발로 마파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보니 낮에 산 모종들은 어찌되었을까?
(「오늘의 날씨」, 271면)

14)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4, 20면.

15) 임영천은 ‘별’의 의미를 “갯벌의 상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우리방향하게 된 새만금 해역 어민들에게 미래(에코토피아)를 약속하는 초월의 표상으로서의 자연물로 그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임영천, 「한국의 생태소설 연구-조현용의 한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003, 397면.

별똥별이 떨어진 장씨의 작은 밭은 그들의 불법 터전인 포장마차를 허물기 위해 뿌려진 흙더미를 모아 일군 것이다. ‘별’은 바다를 밀어내고 육지로 변한 소금기 있는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흙과 더불어 사는 길’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파괴당하고, 외면 받으며, 소외되었던 이들 하위주체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상징물인 것이다. 이들 주민은 다시 흙이라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육지에서 정착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것이다.

3.2. 다시 연대하기, 사랑하기

보상금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했던 마을 주민들이었다. ‘마음의 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지만, 각각 서사의 결말에 이르러서는 공동의 위기를 ‘연대’를 통해 돌파하거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꾸기도 한다.

「바다에 길을 묻다」에서 마을 사람들은 어업권 허가와 합리적 보상을 위해 ‘단합의 힘’을 보여주자며 집회를 벌인다. 「호랑이 시집가는 날」에서 성수와 복순의 결혼식장은 간접보상으로 흥흥한 마을 풍경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축복해주는 어울림의 장을 그리고 있다.

「무화과가 있는 풍경」은 묘사나 설명 없이 대평호 아저씨와 승리호 아저씨, 전데리, 젊은 청년 철규의 대화로만 구성돼 있는 단편이다. 바닷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대평호와 승리호 아저씨는 내기장기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내기장기 현장에 찾아온 철규는 ‘집단어업허가제’의 부당함을 전하고 반대 서명을 받는다. 그러면서 수협조합원의 선거가 곧 치러질 것이라는 속내를 비친다. ‘성스러운 데모’ 활동은 순수한 투쟁을 넘어 마을 수협조합원 선거에까지 이용되는 등 변질돼 있다. 새만금 사업은 거대 권력층부터 아래 하층민의 삶에 까지 정치적 선거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마을의 어른인 대평호와 승리호, 전데리 아저씨는 반대 서명에 지장을 찍어주면서도, 정당한 노동 즉 ‘뱃일’을 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기판의 ‘꼴’에 자신들을 빗댄다.

뒤로는 절대로 못 가고 앞으로만 땀기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또 그렇게 갈 수 없고, 혼자서는 별라 힘이 없으니까 여럿이 함께 이웃하는 모습이

또 우리네 삶이다, 이 말씀이여. 우리가 바로 쫓이고 쫓이 바로 우리랑께. (「무화과가 있는 풍경」, 215면.)

장기관에서 ‘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장군이냐 명군의 입장에서 줄은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를 지켜줄 최전병들이다. 최대 권력자의 시선으로 볼 때 줄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과감히 버려도 되는 희생양이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장기관에 따라서 줄은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줄’의 모습은 개별 주체로서는 아무런 힘도 의미생성도 하지 못하지만, 주위 구성진의 위치와 형세에 따라 상대편의 힘을 꺾는 변혁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장기관의 ‘줄’에 빚대어진 새만금 지역 어민들은 거대 권력의 구획에 의해, 막혀가는 육지의 최전방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공동체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사유화되고 구획되어지는 자본주의적 삶 속으로 강제 편입되면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줄’의 철학은 ‘재앙’과도 같이 갑작스럽게 서게 된 삶의 전쟁터에서도 여럿이 함께 연대해 힘을 합쳐 한발 한발 내딛는다면, 새로운 변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¹⁶⁾

전데리는 점룡과 심한 반목이 있지만, 자신의 딸과 사이가 나쁜 점룡의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한다. 승리호 아저씨의 만세력을 빌어 혼날짜도 잡으려 한다. 덕분에 바다의 매듭으로 쓸모없어진 승리호 아저씨의 만세력은 마을에서 다시 필요한 예언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것이 된다. 전데리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뭇가지에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리본을 만들어 매달아 놓는다. 이는 비록 마을이 반목과 갈등으로 해체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한 그루의 나무에 어울리게 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달아보는 것이다.

자식들의 결혼을 통한 화합은 당대의 극심한 갈등이 다음 세대의 자식(전데리의 딸과 점룡의 아들처럼) 혹은 그 다음 후손인 손주들의 세대(어촌계의 장씨 손주 장한빈과 김양식업을 하는 가게의 딸 슬기처럼)에서 ‘사랑’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16) 오창은, 「‘줄(卒)’의 언어로 풀어낸 새만금 갯벌 이야기」, 『비평의 모험』, 실천문학사, 2005, 111~131면 참조.

4. 나오는 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매우 생생하다. 이들의 생명력은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투리에서, 거친 욕설에서, 온 몸을 던지면서 벌이는 싸움판에서 팡팡거린다. 소란스런 등장인물의 신체는 서사에서 종종 ‘나무’나 ‘햇볕’, ‘신시도의 풍경’, ‘오염되는 바다’ 등과 겹쳐 묘사된다.

「어머니는 어느 강을 흐르고 있을까」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아파트 앞 베란다에 알몸으로 나와 ‘한 그루의 나무처럼 해바라기’에 집착한다. 어머니가 죽은 후 서술자인 ‘나’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뺨가루를 안고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해바라기’를 한다. 얼마 후 죽은 노모의 뺨가루는 그녀의 소망대로 고향 바다에 뿌려진다. 고향 바다는 이제 여느 바다와는 다른, 노모의 몸을 품은 존재가 된다. 「바다에 길을 묻다」에서 장씨의 막내아들 해화는 서울도시에서 실연의 이픔을 안고 고향을 찾는다. 새만금 사업으로 처리되는 배들의 무덤, 신시도의 어슴푸레한 풍경은 상처 입은 그의 내면을 상징한다. 「뿌리없는 나무」에서 광팔이영감은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바다가 스며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에서 장씨의 고장 난 허리는 오염되는 바다에 비유된다

소설집의 제목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의 ‘파도’는 막혀가는 새만금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자 바로 새만금 지역 주민을 상징하는 것이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신체와 내면 풍경을 바다와 나무, 햇볕, 섬 등과 병치시키면서 인간도 자연 존재물 중의 일부라는 생태학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또한 새만금 주민은 개발을 중시하는 인간에 의해 정복해야할 자연처럼, ‘타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그들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위법 행위로 규정 당한다. 공권력에 쉽게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던져지는 이들의 ‘맨 몸’과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이들의 ‘입’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과 공생의 관계에서 균열과 분할을 거쳐, 식민지적 상하 관계로 재편되는 ‘과정의 총체’이다. 저항과 재순응, 일탈과 포섭, 파괴와 복원을 일컫는 총체 말이다.

〈참고문헌〉

-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4,11.
- 조헌용,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창비, 2003,10.
- 류보선, 「탈마법화된 바다, 혹은 바다의 재탄생」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창비, 2003,10.
- 사회갈등연구소, 「부안사태 4년, 대책 사업 갈등이 남긴 상처,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www.socon.or.kr, 2007,7.
- 오창은, 「줄(卒)의 언어로 풀어낸 새만금 갯벌 이야기」, 『비평의 모험』, 실천문학사, 2005,6
- 임영천, 「한국의 생태소설 연구-조헌용의 한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1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6.
- 함한희, 「새만금간척사업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 2001,여름.
- 함한희,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새만금지역의 경우」 『ECO』 2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2.
- 함한희 「새만금 간척개발사업과 어민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7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5.
- 함한희, 강경표 「어민, 환경운동가, 그리고 정부의 바다인식-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ECO』 11권,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12.

【국문초록】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담론은 경제학적, 환경학적, 공학적, 인류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자 전환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학적 관점에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현용의 연작소설집 『과도는 잠들지 않는다』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이다. 총 8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다. 작가는 바다에서 육지로 변해가는 ‘과정 중’의 새만금 일대를 포착한다. 작품을 통해 살펴본 새만금 사업의 갈등과 투쟁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금 갈등이다. 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 지급 대상을 두고 가족 간,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둘째, 바다에서 육지로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존 투쟁이다. 특히 합법/불법을 규정하는 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볼 수 있다. 셋째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관의 갈등이다. 이는 생존과 이상의 갈등, 세대 갈등과도 연관된다. 넷째, 마을의 공간 파괴와 문화 붕괴로 야기되는 갈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꿈꾸기, 마을 주민 간 연대와 희망 찾기가 갈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어: 보상금, 생존권, 노동 환경의 변화, 문화 붕괴, 개발과 환경, 연대, 생태소설, 새만금 사업 갈등

【Abstracts】

A novel material Saemangeum Project aspects of the Conflict Patterns

– With a focus on *Waves Never Go to Sleep*, the collection of Cho Heon-yong's novels

A novel material Saemangeum businessconflict research

Kim, Eun-hye

(completed a doctoral course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discourse about the Saemangeum Project has studied it in the economical,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anthropological aspects. When the project is turning into one of the critical issues and turning points in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re rises a need to study it in the literary aspect.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project as it was reflected in novels.

The collection of Cho Heon-yong's series novels, *Waves Never Go to Sleep*, tells the stories of the locals in the area and has total eight medium-length and short stories. The writer captures the area of Saemangeum "in the process" of the sea turning into the land. The stories

reveal the following conflicts and struggles involved in the project: first, there are conflicts over compensation money. Conflicts over the criteria and recipients are repeatedly depicted among families and locals. Second, there are struggles for survival as the working environment changes from the sea to the land. Especially conflicts are rising between the government that defines what is legal and what is illegal and the locals. Third, conflicts of values happen 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those conflicts are connected to conflicts between survival and ideal and conflicts among generations. Fourth, conflicts are caused as the village space is destroyed and culture breaks down. And finally, solidarity and hope among the residents are suggested as alternatives to those conflicts.

Key words: Compensation, Survival, conflicts of Saemangeum Project, development and environment, solidarity, ecological novels, change in the working environment, culture breakdown,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